

밀알교회 우 641-251 경남 창원시 명서2동 115-3 ☎(055)238-8822 담임목사 황권철	 (홍주소:사명자) http://www.mealall.or.kr	밀알강령 † 밀알이 되라 † 증인이 되라 † 사명자 되라
설립: 950928, 주제: 신앙고백, 밀알: 제0541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앙고백)

본문/ 시18:1-6

일시/ 2005. 5. 15.주일낮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체험입니다. 영적 신령한 체험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신앙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고백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욱 빨리 자랍니다. 마지막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기를 공급하는 신앙의 젖줄입니다.

영적 신령한 체험

먼저 본문의 서론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시편 중 다윗의 시가 약 삼분의 일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가 다윗의 삶의 배경 속에서 우러나온 시입니다. 다윗이 삶속에서 물어 나온 시상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고백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체험은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만을 강조하면 잘못된 체험주의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체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진 역사적인 종교인 반면에 신비주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전역사가 신비로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비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한 사건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만약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교회를 지배할 때 기독교는 무속적인 사마니즘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역사성을 가진 종교로서 체험과 신비의 두 날개를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는 규범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이나 신비가 다 계시에 의존해야 합니다.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다윗의 체험을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 서론에서 밝힌바 대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으면서 겪었던 영적 신령한 체험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사울이 던진 창에서 건짐을 받았습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한 이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임하여 다

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하루는 다윗이 궁중에서 수금을 타는 틈을 이용하여 사울이 손에 잡은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삼18:12) 둘째, 다윗이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피신할 때입니다. 다윗이 궁중에서 도피하여 나와서 사무엘의 고향 선지학교가 있는 라마 나뭇에 가서 피신해 있을 때 사울이 보낸 군대가 다윗을 생포하려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그의 산하들을 보내고 세 번째는 사울 자신이 왔으나 사무엘의 영성에 감동되어 다윗을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선지학교의 무리들과 함께 벌거벗은 몸으로 회개하고 예언하여 사울이 선지자의 반열에 참여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삼상 19:18-24). 셋째, 놉 땅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신할 때입니다. 이때 사울의 신복 도액의 손을 빌려 제사장 85인과 그 가족 및 생축까지 놉 땅에 거하는 제사장의 속하는 자들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삼상22:19).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그가 길가에 양 우리로 사용하는 굴에서 피신해 있는데 사울이 삼천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생포하려 왔으니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적과 아군이 한 굴에서 동숙하는 정말 희한한 드라마 같은 기적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삼상24:6)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의 체험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340장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신령한 체험들이 많아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고백

본문 2절에서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별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너무도 실제적인 표현으로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와 나의 반석입니다(The Lord is my rock). 다윗은 시편에서 약 20회 정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 활로써 전쟁을 할 때 황무지 들판에서 바위와 같은 진지 하나를 확보하는 것은 일천군대보다 더 값진 군사무기입니다. 이 반석은 어떠한 화살도 뚫을 수 없으며, 어떤 불화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반석 같은 큰 진지를 사수했다면 어떠한 적도 항거해 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요새 역시 인간이 만든 진지이므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둘째, 나의 방패입니다(He is my shield). 방패란 전투시 사용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반석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진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방패란 진지에서 벗어나 적과 마주 대하는 전투의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이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방어해 주는 무기가 바로 방패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추격해 올 때 “방패 든 자가 앞서더라”(삼상17:41)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고백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엡6:16)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 셋째, 구원의 뿔이십니다(He is the horn of my salvation). 짐승에게 있어서 뿔이란 방어 수단을 위한 힘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뿔을 의인화시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곧 힘과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뿔이 성전에도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 모서리에 네 뿔이 있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릴 때 제물의 피를 그 뿔에 바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피가 발린 뿔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뿔에 발린 피는 죄인을 대속해서 죽은 속죄의 피이므로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신앙을 밖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품은 신앙은 내 자신만의 구원을 이룰 뿐이지만 외적으로 고백된 신앙은 흑암의 쇠사슬을 풀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사망의 줄과 불의 창수와 음부의 모든 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4-5)고 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비밀

다윗은 이러한 신령한 체험과 신앙고백 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이 기도는 기도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다윗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환난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그 자체가 바로 기도제목입니다. 환난은 내 재주로 안 되니 기도로서 풀어가라는 신호요 사인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에 처할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의 변화 없이 절대로 위기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로하면 더 이상의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면 환경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위기의 극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세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바뀔수록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걸음을 멈추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르짖는 기도의 체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라며 그 장소가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에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골방입니다. 하나님은 골방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골방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때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집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집중하는 기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넷째,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기도는 않고 남의 기도를 듣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비록 기도 내용은 중보적 사역일지라도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시66:18), 또한 정욕으로 쓰려고 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선한 목적이지만 영적 지각이 우둔하여 잘못 구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요15:7). 조지 물러는 21세에 중생하여 무일푼으로 2500가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식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지구는 만유인력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만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이에 선지의 사명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삶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17:5)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 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치고 더위가 올찌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17:7-8)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올 때 사웨 골짜기 곧 왕곡(King's Valley)에서 명암이 교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왕 베라가 베푸는 물질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일언지하에 세속적인 물질을 거부하고 살렘왕이 베푸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은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계곡으로 주님이 즐겨 다니시는 곳이며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기도한 곳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계곡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선 오늘의 삶의 선 자리에서 왕곡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계18:1-6)

신앙생활의 중요한 3가지 요소

- 첫째/ 신령한 체험
- 둘째/ 올바른 신앙고백
- 셋째/ 기도생활

영적 신령한 체험/ 서론

- 체험/ 역사적인 사건- 체험주의 잘못
- 신비/ 알파와 오메가- 불신비주의 잘못(무속 사마니즘)
- 말씀/ 체험과 신비가 말씀에 근거

1. 사울이 던진 창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울에게 악신 임함
 2. 다윗이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피신할 때- 두 번 부하, 세 번째 자신
 3. 놉 땅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신할 때- 도액 85인 제사장 죽음
 4. 엔게디 황무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지 않음
- 찬송가 340장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올바른 신앙고백/ 1-2절

1.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The Lord is my rock). 약 20회 정도
당시 놀라운 곳 활전투 - 불화살도 불과
2. 나의 방패입니다(He is my shield). - 방패란 전투시 사용하는 방어 무기
골리앗 “방패 든 자가 앞서더라”(삼상17:41)
바울/ “믿음의 방패”(엡6:16)
요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믿음이라고 했다.
3. 구원의 뿔이십니다(He is the horn of my salvation).
짐승에게 있어서 뿔이란 방어 수단을 위한 힘의 상징
번제단 모서리에 네 뿔이 있고,
롬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의 놀라운 비밀/ 6절

1. 기도하는 시간/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바로 기도할 때, 그 자체가 바로 기도제목
2. 기도하는 자세/ “부르짖었더니”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3. 셋째, 기도하는 장소/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집중, 기도의 골방
히스기야는 얼굴이 벽을 향하여 기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골방을 찾았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때 성전을 찾았다.

4. 내 소리를 들으삼- 듣기를 원하신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시66:18),
정욕으로 쓰려고 해도 허용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요15:7).
조지 물러는 21세에 중생하여 무일푼으로 2500가지의 응답을 받았다.
자석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용해서 움직인다.
지구는 만유인력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만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삶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 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치고 더위가 올찌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17:5-8)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올 때
사웨 골짜기 곧 왕곡(King's Valley)에서 명암이 교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소돔왕 베라가 베푸는 물질로 치부할 것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것인가?

이 계곡은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계곡으로 주님이 즐겨 다니시는 곳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계곡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여러분도 선 오늘의 삶의 선 자리에서 왕곡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